

“철강·조선·해운 등 주력산업 위기”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철강·조선·해운 등 주력 산업의 위기를 우려했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경제동향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철강·조선·해운 등 일부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과잉설비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들 산업과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아울러 “최근 세계교역량이 감소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등 수출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수출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해 우리경제 전반에 누적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한은 경제동향간담회 “글로벌 과잉설비 문제 지속”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제조업 그림 필요”

“보호무역주의 대두, 수출여건 개선 어렵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출산을 제고해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고령층과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총재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우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치사가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 등을 꼽았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문제보다 풀어나가기 훨씬 어렵다”며 “저출산 문제는 지금 대책을 세우도 효과가 20, 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통계국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현재 13.0%지만 2050년이 되면 35.9%에 달해, 일본(40.1%)에 이어 세계 2

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제연합(UN)은 현재 수준의 합계출산율(1.24명)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총인구는 지난해 5000만명 수준에서 2070년 40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역점 과제로 생각해서 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과 관련,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승철 한은 부총재,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박홍재 현대자동차 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2분기 단기외채 비율, 1년 만에 상승세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 ... 28.9%로 전분기보다 0.7%p 상승

지난 2분기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1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6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6월말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8.9%로 전분기보다 0.7%p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이 상승한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1년 만이다.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79.3%(9월말 기준)까지 치솟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분기에는 28.1%로 지난 2004년말(27.4%) 이후 11년3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전분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소폭 늘긴 했지만 미미한 변화로 우리 외채구조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지표로 단기적인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낸다. 100%를 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대외채권이 늘고, 대외채무는 줄면서 순대외채권도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대외채권 잔액은 6월말 기준 7495억 달러로 지난 3월말보다 188억달러 증가했다. 반대로 대외채무 잔액은 3918억달러로 25억달러 늘었다.

이에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163억달러 늘어난 3578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우리나라의 대외투자(대외금융자산) 잔액은 1조1938억달러로 전분기보다 260억 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이는 증권투자와 직접투자 등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직접투자는 2932억달러로 43억달러 늘었고, 증권투자는 2626억달러로 165억달러 증가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한 잔액(대외금융부채)은 9597억달러로 전분기보다 47억달러 늘었다.

한은은 “국내 주가 하락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비거래적 요인에 따라 부채 잔액이 감소했으나 외국인의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이 더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외투자에서 외국인투자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2341억달러로 전분기보다 198억달러 증가했다. /뉴시스

KT, 비디오 플랫폼 ‘dovido’ 출시... 해외 콘텐츠 시장 도전

‘세계 최초 길잡이 비디오 커머스 플랫폼’ 지향
간편 제작·다양한 수익구조 등 5개 차별화 포인트 제시
중국·북미·유럽 진출 2020년 사용자 2억명 확보 계획

KT가 비디오 플랫폼 ‘dovido(두비두)’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도전한다. 중국을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에 순차적으로 진출해 2020년 사용자 2억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KT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빌딩 West KT스퀘어에서 dovido(‘do+video+do’의 합성어) 출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콘텐츠 플랫폼 사업 전략을 밝혔다.

KT는 02(Online to Offline·온오프라인 연결서비스), 비디오(Video),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KT는 지난날 중국시장을 겨냥해 020서비스 ‘100C(바이씨)’를 출시했고 SNS 영역에서도 조만간 신규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비디오 영역을 책임질 dovido는 ‘세계 최초 길잡이(How to) 비디오 커머스 플랫폼’을 지향한다.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방법을 담은 비디오 검색 횟수가 급증하는 것에 착안해 개발했으며 누구나 쉽게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비디오 콘텐츠의 촬영부터 편집, 업로드, 검색, 연계상품 커머스까지 가능한 플랫폼으로 국적을 떠나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비디오 콘텐츠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모바일 ‘원스톱(One-stop)’ 스튜디오를 구현했다.

KT는 dovido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간편한 비디오 콘텐츠 제작 ▲글로벌 비디오 커머스 ▲다양한 수익구조 ▲관심분야 비디오 큐레이션 ▲영상에 나온 상품 바로 구매 등 5개 차별화 포인트를 제시했다.

KT는 dovido를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출시 시점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에 기반한 ‘K-뷰티’ 관련 비디오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리빙(생활), 쿠팡(요리) 등 길잡이(How to) 영역으로 확대 2020년 서비스 플랫폼의 주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으로 진출해 2억명의 사용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강민호 KT 플랫폼서비스사업단 상무는 “초기에는 제휴사(로리안몰)와 뷰티 영역에 집중하겠지만 향후 카테고리 추가해 오픈마켓 형태로 진화할 예정”이라며 “2020년 전체 1조원



KT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빌딩 West KT스퀘어에서 콘텐츠 플랫폼 사업 전략과 함께 누구나 쉽게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How to 비디오 플랫폼 ‘dovido(두비두)’를 선보이고 있다.

규모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KT는 통신 영역을 넘어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로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플랫폼사업자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은 제한된 국내 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dovido를 통해 통신 영역을 뛰어 넘는 성장을 꾀할 뿐 아니라 향후 유망 플랫폼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dovido는 30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애플 앱스토어는 다음달 초 서비스 예정이다. /뉴시스

7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7.8% 감소

지난달 국내 기업들이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월보다 8% 가까이 줄었다.

경기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중공모를 통한 기업의 주식·회사채 발행실적은 총 10조8791억원으로 전월(11조7938억원) 대비 9147억원(7.8%) 감소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조달금도 1년 전보다 8조536억원(10.1%) 감소한 71조83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주식 발행액은 6284억원으로

38.1%(3863억원) 급감했다.

기업공개(IPO)는 코스피 2건, 코스닥 6건 등 2516억원 규모로 이뤄졌고 유상증자는 현대상선을 포함해 8건, 3768억원 규모였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10조2507억원으로 5284억원(4.9%) 줄었다.

은행 등 금융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소폭 증가했으나 일반회사채는 1조394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8410억원(37.6%) 감소했다.

특히 신용등급별로 보면 우량주인 AA등급 발행액이 1조5200억원에서 4100억원으로 73.0% 폭 떨어졌다.

/뉴시스

‘퇴직연금’ 지연시 연 10~20% 보상금 지급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지급이나 계좌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는 금융회사는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지급 등을 미루는 금융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막기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자산관리회사가 운용관리회사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로 단축(현행 7영업일)하고, 이를 어기면 보상금

을 지급토록 했다.

보상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을 미룰 경우 불계공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지연 기한이 14일 이내면 연 10%, 14일부터는 20%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계좌 이전 처리기한은 최대 5일(운영관리기관 3일, 자산관리기관 3일)로 제한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